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사에 음란전화 악성민원인 고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민원인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모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발놈 등의 욕설과 함께 “××나 빨아”, “××하고 싶다” 등 도 넘는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정부부처 중에는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최근 2년간 12.9%이상 늘었으며,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비례적으로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 급증에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사건

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번 사례가 첫 사례인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 전화상담사를 보호하고, 같은 사례를 예방함과 동시에 전화상담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최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사기자



문체부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월 9일부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함으로써,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 대표정책 중 하나다.

2015년에는 전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카드 발급 방식이 변경된다. 2014년에는 선착순으로 카드를

프라인별 순차적 개시로 변경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전국 동시 신청 개시로 인해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 불편이 초래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주민센터에서의 신청은 2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27일 대구·울산·경남·경북까지 차례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9일부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시작된다. 카드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이며, 카드 이용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공연·전시 관람, 숙박,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분야 및 스포츠 관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 및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 (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이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의지를 고양하는 등, 문화향유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문화누리카드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이용처를 확충하고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과·한부모 가족에 육아용품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제로투세븐(대표 조성철)은 2월 5일(목) 15시, 매일유업 대회의실(서울시 종로구)에서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저소득 다문화가족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서로 협력하게 되며, 분유와 출산에 필요한 물품 등을 향후 3년간 총 9억원 상당 지원하게 된다.

또한, 매일유업(주) 등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수유 및 이유식 상담 등 육아 정보를 제공하며,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 30여 세대가 참석하여 소원나무에 소원 열매를 달고, 이어지는 유아식 특강에서 분유와 출산 키트를 지원받는다. 김희정 여성가

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아다문화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올해 3월 출범하고, 다문화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인재 육성 및 해외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생계비 지원

경기도가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산과 안성, 김포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생계비 지원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억6천96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안산과 안성, 김포 등 3개시 거주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2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사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 은 현재 안산 1,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1,646명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노인 가운데 거래자원재활용업체(고물상)와 이웃 등의 확인을 통해 6개월 이상 폐지 수거를 한 노인을 최종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폐지 수집 후 도매상에 넘길 때 노인들이 kg당 70~80원 받는 것을 고려해 한 달에 20일 정도 kg당 30~40원씩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책정했다.”라며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노인들이 폐지 줍는 일에 나서는 상황도 고려해 생계비를 정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모두 5,891여 명에 이른다. 도는 이들 노인의 29%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가 차상위 계층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도는 생계비 지원 외에 1개당 5만5천 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 찜질기)와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방한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 찜질기는 800개를 안양시 소재 ㈜티엔비 나노일렉이 기증했다.

이밖에도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실정을 고려,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리어카나 캐리어 등 폐지 운반도구에 야광 설치나 야광포인트 칠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는 노인에게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을 위해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점을 마련, 내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본사기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자리 확대 위해 임금 인상 필요”

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웅순)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보고서(저자 정원호)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인

상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내수 확대의 원인이 되어,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초래한다. ▲또한 내수 확대에는 고임금계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이 더 큰 역할을 하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계층의 임금

인상에 정부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원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임금 인상 정책에 있어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최저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며, “최저 임금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업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부문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과거 임금 억제만을 고수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임금 인상 특히 최저 임금 인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서울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자체면허 시험을 통한 빠른 운전면허 취득 !
경찰청지정 자동차운전학원

전국에서 가장 빨리 취득!!
충분한 연습량에 의한 집중 교육으로 초보자도
기능:1일~2일 도로주행 2일이면 합격
누구나 합격이 쉬운 학원자체시험으로 안전하게 합격합니다.

편리한 셔틀버스 제공
편리한 무료셔틀운행으로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강남구 실시간 운행합니다.

운전감독이 둔하시거나 겁많은신분 특별우대 친절교육
성심성의껏 품격높은 명품교육 책임지겠습니다.

맞출수강 등록 ! 주말반 새벽반 아간반 자유반

1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 2~3일완성	2종보통 학과+기능+도로주행 = 2~3일완성	대형면허 대형면허 3일완성	방문운전연수 단기반 = 3일완성 정규반 = 5일완성
---------------------------------	---------------------------------	-----------------------	--

친절상담
궁금한 것들은 바로 전화하세요
070-7711-7554
010-6866-0815

셔틀버스운행지역

1호선: 장동역, 석계역, 방악역, 도봉역, 도봉산역, 망월사역, 외릉역
2호선: 삼성역, 건대역 4호선: 수유역, 행문역, 장동역, 노원역
5호선: 군자역 6호선: 석계역, 태릉역, 왕강대역
7호선: 태릉역, 공릉역, 아계역, 중계역, 노원역, 마들역, 수락산역, 장암우성아파트, 청담역, 건대역, 어린이대공원역, 군자역, 중악역, 먹골역